카메라 닮은 집주인 아들 이름은 캐논, 니콘, 엡손

▲ 사진작가가 지은 카메라 닮은 집이 사진 명소가 됐다. 사진=theweek

카메라를 닮은 집을 지은 한 카메라 마니아의 사연이 화제다.

21일 '나우뉴스' 에 따르면, 인도 카르나타카주 벨가움에 사는 49세 남성 라비 홍갈은 710만 루피(약 10만 달러)를 들여 카메라를 닮은 3층 단독주택을 지난 5월 완공하고 클릭(Click)이라고 이름 지었다.

밖에서 본 거대한 카메라 렌즈는 2층 주방 싱크대 바로 위에 있는 거대한 원형 창문이고, 35㎜ 필름 필처럼 보이는 부분은 발코니 난간이다. 건물 외관에는 이 밖에도 스트로보나 SD 메모리 카드 또는 카메라 브랜드명 등이 붙어 있어 이 집이 카메라를 콘셉트로 두고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홍갈은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33년 동안 카메라와 함께하고 있는 그의 세 아들의 이름도 카메라 브랜드명이다. 20세 맏이가 캐논, 18세 둘째가 니콘 그리고 13세 막내가 엡손이다.

그는 아들들이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처음에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내가 큰 힘이 됐다. 지금은 꽤 좋아한다." 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의 이름을 따서 지어줬고 아이들도 이해해 지금은 자랑스럽다." 고 설명했다. 이어 "2년 전부터 이 집을 기획했다. 각층 실내를 세 아들의 이름에 맞춰 꾸몄다." 면서 "1층은 막내, 2층은 둘째 그리고 3층은 맏이를 위한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집은 완공 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셀카 명소로 자리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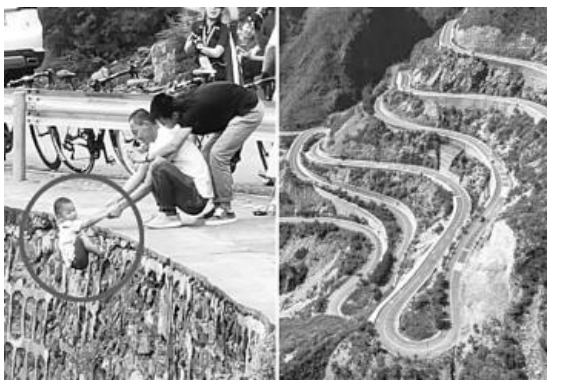
인증샷 찍으려고 가파른 절벽에 어린 아들 매단 아빠

기념사진 한 장 건지자고 가파른 절벽에 어린 아들을 매단 중국 남성에게 비난이 쏟아졌다.

지난 12일 한 중국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의 손을 잡고 아들을 절벽에 매달리게 한 영상을 공유했다. 영상을 보면 이 아이는 소년은 매우 위태로워 보였지만,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은 기념사진을 찍어대기 바빴다. 아버지도 중간중간 아들의 손을 흔들며 겁을 주는 재미에 빠진 듯 보였다. 누군가 "아이 손이 떨리고 있다." 고 소리쳤지만 개의치 않았다.

사진이 촬영된 곳은 베이징 교외 팡산구에 위치한 홍징루라는 산악도로다. 19㎞에 이르는 구불구불한 도로가 산을 7바퀴 감아 도는데, 그 높이는 905m에 이른다. 산 맨 꼭대기에서 내려다보이는 굽이진 산악도로가 절경으로 꼽혀 관광객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경사가 심해 가장 위험한 라이딩 코스로도 유명하다.

문제는 몰려든 관광객의 무리한 인증사진 촬영 때문에 안전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도로와 절벽 사이에 안전 펜스가 설치돼 있긴 하지만, 펜스를 넘은 관광객들은 절벽을 배경으로 경쟁적으로 인증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가파른 절벽에 어린 아들을 매단 남성과 산악도로 사진=페이스북

어린 소년의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아버지 자격이 없다" , "사진 몇 장 때문에 아들 목숨을 가지고 장난친다" 고 비난했다. 당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당국은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팡산구 당국은 방송차량이 도로를 돌며 안내 방송을 하도록 했으며, 위험지대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을 제지하는 순찰대 운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종 반려견, 50마일 떨어진 옛집에서 발견

실종된 반려견이 어릴 적 살던 동네에서 발견됐다.

19일 CNN에 따르면 미주리주 클레이카운티 로슨 지역에 사는 콜튼 마이클은 이날 퇴근 후 집 현관문 앞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 인식표 목걸이를 걸고 있진 않았으나 털이 잘 관리된 것으로 보아 유기견은 아닌 듯했다. 가까이 다가가자 강아지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마이클은 "간신히 개를 달래 수의사에게 데려갔다. 다행히 반려견 일련번호와 주인의 정보를 담은 마이크로칩이 내장돼 있었다." 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주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마이클은 "마이크로칩에서 개 주인을 확인했는데, 어딘가 익숙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우리 집에 살던 가족의 이름과 같았다." 라고 말했다. 마이클 가족은 2018년 11월 지금의 집으로 이사했다. 마이클 가족이 이사 오기 전까지 그 집에 살던 가족은 캔자스로 이주했다.

혹시나 해 페이스북을 뒤진 마이클은 잃어버린 반려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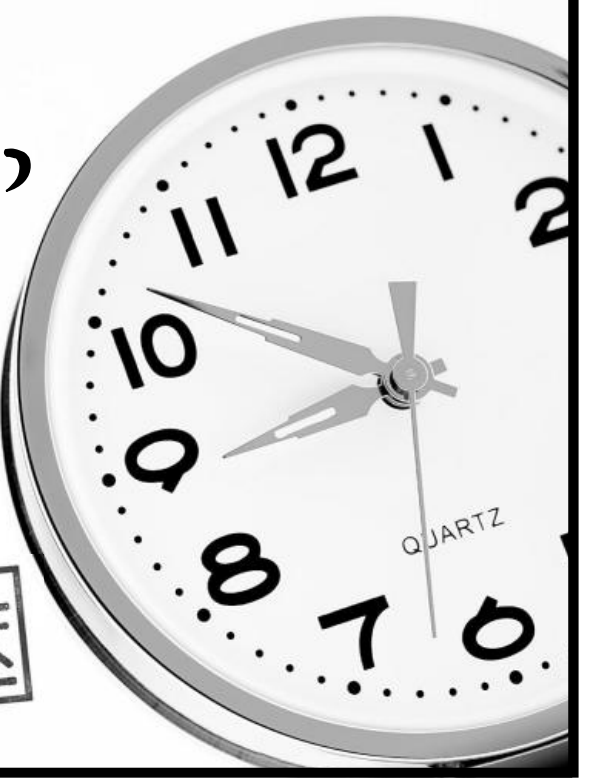
▲ 어릴 적 살던 집에서 발견된 '클레오'. 사진=CNN 캡처

을 애타게 찾는 옛 집주인의 글을 찾았다. 옛 집주인은 4살 된 래브라도 종 반려견 '클레오' 가 사라졌다며 제보를 호소하고 있었다.

옛 집주인은 마이클의 연락을 받고 "캔자스주 존슨카운티 올레이스 새집에서 옛날집까지는 최소 50마일 거리다. 어떻게 그곳까지 갔는지 미스터리" 라며 클레오를 보호해준 마이클 가족에게 감사를 전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업소명(한글) :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타운 뉴스